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접근과 방송의 재현에 관한 고찰¹⁾

□ 최은경 / 연세대학교

I. 서론

2009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안’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후 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면, 바야흐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 속에 이미 방송과 통신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은 다양한 정책안을 마련해왔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던 노력은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고시는 「방송법」 제69조 제8항 및 제9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폐쇄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자와 그 편성비율 및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 별로 달성 목표치에 차등을 두고 시행되지만, 결국엔 지상파를 비롯한 지역, 종합 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위성방송, SO, IPTV 사업자들 모두가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 소외 계층을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연구를 했던 노력이 결실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방송 소외계층 정책이 시청각 장애인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권을 가진 가정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방송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적절한 것이었는가를 되돌아보게

1) 본 연구는 2012년 언론학회 불철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방송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사회 활동 방법과 가족 구성 방식에서도 빠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불과 2천 여종에 이르렀지만, 빠른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약 2~3만 여종의 직업이 있으며, 직업의 25%가 25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라고 한다.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다. 국제 결혼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배가 넘게 늘었으며, 결혼 이민자만 13만 1천 여명이 넘는다고 한다(복지부, 2009).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북한이 탈주민(이하 새터민) 수도 증가 하고 있으며, 기초 생활보호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회의 단면이자 한국 사회가 이루어야 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 접근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학적 사실’은 ‘다문화성’으로 정의되며, 그러한 사회학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을 ‘다문화주의’라고 한다²⁾. 즉, 우리사회는 다문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여 문화적인 차별을 두지 않는 ‘다문화주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비환 2007, 백선기, 황우섭 2009).

본 고의 문제의식도 바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국내 방송 정책이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주도형 방송 정책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 사회는 방송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정의하고, 묘사하며 리드하는가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좌우되는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방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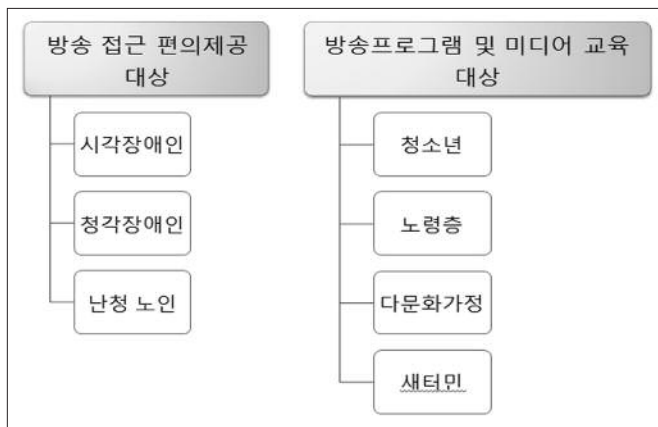
II. 국내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 현황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안’(2009)은 방송 소외자들을 “방송 접근에 장애 또는 불편이 있거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적정한 방송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소외 계층으로 분류하는 계층은 첫째 방송수신기 보급 등 방송접근 편의제공 대상은 시각 장애인(1~6급), 청각 장애인(1~6급), 65세 이상 노령층 중 난청 노인이며, 둘째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대상으로 청소년, 노령층, 다문화가정, 새터민(탈북이주민) 등이 있다.

방송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 방송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³⁾이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령은 2012년

2)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에 폭발한 시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1970년대 근대화, 지구화, 국민국가, 민족사회, 사회공동체 같은 이념으로 세계 인구가 이동하면서 발생한 민족과 이문화 사이 갈등을 논의하면서 개념화되었다. 초기에는 동화주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주류문화와 이문화의 통합을 논의했지만, 현대사회의 ‘다문화성’은 동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이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구건서, 2003).

3) 방송법 제38조(기금의 용도) 8호,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시행규칙 제20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장애인 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3항이 있다.



〈그림 1〉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안(2009)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송소의 계층

2월 1일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 보호, 교육 등 포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최근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법안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현을 위한 방송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첫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신기 보급, 둘째,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셋째, 미디어교육 교재개발과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있다. 2006~2008년 동안의 방송 소외계층 지원 실적을 보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신기의 경우 90.3억원을 지원하여 자막 방송용, 화면해설방송용,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를 보급 지원했고, 장애인 대상 방송 제작 지원으로 58.3억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18.1억원이 교재개발(종합자료집·초등학교 교재) 및 미

디어교육 활동에 지출되었다. 수신기 지원은 기술 개발과 비시장성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시급했을 수 있지만, 방송 제작과 미디어 교육 지원비까지 포함하면 방송 소외 계층지원을 위한 재정은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소외 계층 지원 계획에는 사업자들의 제작 지원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상파 4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과,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수화방송 제작, 각 방송사의 장애인 프로그램 방송 홍보를 지원했는데, 지원 방법은 중앙/지역방송사, 공영/상업방송, 장애인 선호 프로그램 편성비용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매칭(先 방송 後 지원)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교육 내실화 및 과학적 체계구축을 위한 교재 신규개발로 현재 중학생용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 및 미디어교육아카이브를 업데이트 했으나, 초·중·고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은 진행 및 계획 중이다. 하지만 초·중·고 미디어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공부방 방송기자재, 미디어교육 지원 및 미디어중독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서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신기 지원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노령층 대상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낮아 방송 소외계층의 소외정도가 심화 우려된다.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서비스 이용행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 방통융합, 디지털전환 등 방송환경의 변화,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이 소외계층의 소외정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관련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예를 들면 소외(vulnerability)가 사회적 고립(isolation)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및 소외계층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했다. 방송의 접근능력(access), 미디어 이해(understanding) 차원에서, 제작 및 참여(participation)능력 배양차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방송수신기 보급률 증대, 장애인 방송편성 확대,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등 성과가 있었으나,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하고, 디지털화 등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부족했다고 내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이 정책 주체와 단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방송 소외 계층으로 분류 되어 하는 근거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다문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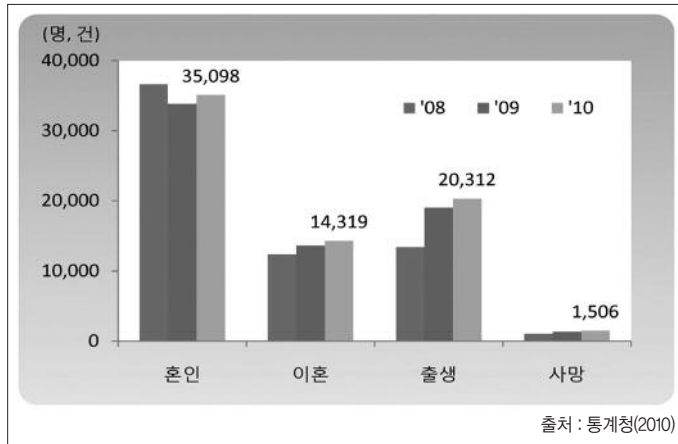
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과 제13조 2항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의 책무가 강화되었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 성과를 위한 방송의 공공적 책무와 참여에 대해서는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다.

Ⅲ.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송 서비스의 필요성

1. 다문화 가구 현황 및 특징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00년 49만명에 불과했지만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의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늘어나 2008년에는 115만 명을 넘었고, 2011년에는 14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2009)와 통계청(2011)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35,098건이며 이혼은 14,319건으로 최근 3년 추이



〈그림 2〉 다문화가정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현황(2008년~2010년)

를 보면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의 전문화와 다양성으로 결혼 적령기가 과거에 비해 높아 졌을 뿐만 아니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문화 혼인은 전체 혼인 대비 10.8% 수준이며, 다문화 혼인의 성비를 보면 한국인 남성이 74.6%, 외국인 여성의 74.9%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혼인 남성 중 40세 이상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혼인 여성 20대가 46.6%를 차지하고 있다⁴⁾.

2010년 다문화 혼인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으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남(14.5%), 전북(11.4%), 제주(11.2%)가 높은 반면 울산(6.2%), 대구(6.3%), 부산(7.1%) 등은

낮은 편이다. 2010년 다문화 혼인 남성의 출신국적은 한국(74.6%), 중국(9.1%), 일본(6.0%), 미국(4.3%) 순서이며, 중국, 일본, 미국이 외국 전체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출신국적은 중국(33.1%), 베트남(27.6%), 한국(19.0%) 순서로,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높으며 3개 국가를 합하면 66.3%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문화에 대한 접근은 재한외국인⁵⁾과 국민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 및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사회적응이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주체에는 재한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이

4) 2010년 다문화 혼인의 부부연령차는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50.9%로 출생한국인 간 혼인의 경우,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은 3.2%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주”란 국내 체류의 한 유형이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 이상의 체류인자 특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유동적인 가변기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9월 이상의 장기체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의 개념에 탈북자는 제외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김기하, 2010).

〈표 1〉 지역별 혼인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다문화)구성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전국*	327,715	309,759	326,104	36,629	33,862	35,098	11.2	10.9
서울	71,753	68,841	70,466	5,982	5,304	5,405	8.3	7.7	7.7
부산	20,149	18,614	20,195	1,574	1,268	1,427	7.8	6.8	7.1
대구	13,743	12,844	13,479	944	766	843	6.9	6.0	6.3
인천	18,108	16,643	17,407	1,692	1,503	1,562	9.3	9.0	9.0
광주	8,472	8,088	8,566	656	571	638	7.7	7.1	7.4
대전	9,499	8,885	9,351	766	708	709	8.1	8.0	7.6
울산	7,837	7,267	7,660	592	464	478	7.6	6.4	6.2
경기	78,004	73,403	78,471	6,765	6,346	6,414	8.7	8.6	8.2
강원	8,517	8,081	8,365	827	792	812	9.7	9.8	9.7
충북	9,512	8,666	9,171	986	758	946	10.4	8.7	10.3
충남	13,354	12,708	13,185	1,551	1,412	1,381	11.6	11.1	10.5
전북	10,399	9,605	10,525	1,400	1,152	1,203	13.5	12.0	11.4
전남	10,480	10,051	10,461	1,465	1,350	1,517	14.0	13.4	14.5
경북	15,634	14,499	15,592	1,558	1,244	1,484	10.0	8.6	9.5
경남	20,497	19,494	21,170	1,767	1,695	1,937	8.6	8.7	9.1
제주	3,445	3,279	3,515	365	333	393	10.6	10.2	11.2

* 국외 포함
출처: 통계청(2010)

〈표 2〉 출신국적별 혼인 구성비

(단위: %)

남성	'08년	'09년	'10년	여성	'08년	'09년	'10년
전체*	100.0	100.0	100.0	전체*	100.0	100.0	100.0
한국	76.4	73.5	74.6	한국	20.4	21.3	19.0
외국	23.6	26.5	25.4	외국	79.6	78.7	81.0
중국	7.3	10.1	9.1	중국	38.6	37.8	33.1
일본	7.5	7.2	6.0	베트남	22.6	21.4	27.6
미국	3.7	3.9	4.3	필리핀	5.1	4.9	5.6
캐나다	1.0	1.0	1.1	캄보디아	1.8	2.5	3.4
호주	0.4	0.5	0.6	일본	3.2	3.4	3.4
영국	0.4	0.5	0.5	태국	1.7	1.5	1.3
독일	0.3	0.3	0.4	미국	0.9	1.2	1.2
파키스탄	0.3	0.3	0.3	몽골	1.4	1.1	1.0
프랑스	0.2	0.3	0.3	우즈베크	1.3	1.1	0.9
대만	0.3	0.3	0.3	네팔	0.4	0.9	0.6
기타	2.0	2.2	2.4	기타	2.4	2.7	3.0

* 귀화한국인인 경우 귀화 전 국적, 국적미상 제외
출처: 통계청(2010)

포함된다. 즉,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종의 다양성으로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한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경험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김기하, 2010).

2. 방송과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구의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부부간 나이차이가 크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 출신의 어린 신부가 나이 차이가 많은 농촌 총각과 결혼해 한국으로 시집 온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생활 기간은 짧고, 이혼율이 높다 보니 젊은 외국인 엄마와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⁶⁾. 그런데 수치상으로 드러난 사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재구성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예상치 못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KBS의 <미녀들의 수다>는 다문화 화성을 표출하며 전개되었지만, 그 이면의 표층구조에는 국가, 문화 및 인종 간의 차별성, 나아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킨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방송사들이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하여 어떤 포맷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1/4분기까지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다룬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KBS

사례 1. KBS 드라마 ‘러브 인 아시아’

※ 기본 정보 : 매주 (화) 저녁 7:30 편성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2005년 11월 5일 첫 방송되었다.

※ 기획 의도 :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이제 그들은 결혼이민자로, 외국인근로자로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웃이자 형제들이다. <러브인아시아>는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이해의 품앗이로 그들을 또 하나의 가족, 다정한 이웃으로 보듬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가족의 가치와 정(情),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열린 시각으로 담아낸다.

※ 분석 내용 : 구성은 한 다문화가정의 일상을 다룬 영상물을 보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시 다문화가정의 아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주로 일상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상황 별 부부 간, 시부모님 간의 오해에 대해 해결방법이나 경험사례를 들며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과거 ‘미녀들의 수다’와 유사한 형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례 2. KBS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 분석 내용 : ‘오작교 형제들’의 주인공 4형제 중 맏형인 태식(정웅인 분)은 자신이 과거 필리핀에 머물 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 아들이 태

6) 2010년 다문화 출생아는 20,312명으로 2009년보다 6.8% 증가했는데, 전체 출생아 470,171명 중 4.3%를 차지하여, 2008년 2.9%, 2009년 4.3%에 이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출생한국인 부모의 출산이 2009년은 전년대비 5.9% 감소, 2010년 5.6%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의 경우 2009년 41.5%, 2010년 6.8%로 더 많이 증가했으며, 2010년 다문화 출생아 중 첫째아 12,795명, 둘째아 6,353명, 셋째아 이상 1,130명이며 첫째아의 구성비가 63.1%로 가장 높으나,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출생한국인 부모의 경우에 비해 첫째아의 구성비는 높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 구성비는 낮다(통계청, 2010).

어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타난 까만 피부의 아들 국수로 본인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족에서 갈등을 겪는다. 드라마는 태식과 그 가족이 국수를 받아들이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리며 호응을 얻었고, 결국 태식이 일련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수의 손을 잡고 ‘다문화 가족 대축제’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담겨있다.

② MBC

사례 1.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 ※ 기본 정보 : 2010년 7월 20일 첫 방송 이후 매주 (화) 낮 12:10에 편성된 시사/교양프로그램
- ※ 기획 의도 : 한국의 낯선 음식과 문화,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젝트, 헬로우 코리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인 및 새터민의 이야기를 통해 눈물과 감동,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프로젝트, 꿈꾸는 가족>,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다문화 여성들 이제 그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친정엄마가 나타나서 다문화 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소통프로젝트, 친정엄마가 되어드립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 ※ 분석 내용 : 첫 번째 주제는 세 명의 외국인주부들이 나와서 한국 곳곳을 탐험하는데, 전통방식이나 예절을 체험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유사 포맷(시골을

여행하던 보쌈과 부르노와이 이야기)이 소개된 바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 적응하는 외국인 여성의 힘든 생활을 다루는 이야기로 결국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 2. ‘다문화꾸러기들’

- ※ 기본 정보 : 2011년 7월 13일 방영된 창사50주년 기획방송
- ※ 기획 의도 : 전남지역 농촌 다문화가정어린이들(어머니포함 200명)이 경험했던 2박 3일간의 직업체험, 문화체험행사를 조망하는 것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등 다문화가정 5~13세 어린이 120명과 어머니 80명이 킨텍스에서 열리는 <공룡엑스포>를 관람하고, MBC 드림센터를 방문해 <쇼! 음악중심> 리허설을 관람한다. 그리고 안성 팜랜드에서 승마체험과 천안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등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 분석 내용 :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MBC나눔의 세 번째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체험하고, 참가한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⁷⁾.

③ SBS

SBS의 경우 현재 방영 중인 다문화 가정 참여/대

7) MBC 나눔의 프로젝트는 그 밖에 <연변 장애인 100명의 한국 방문>, <쪽방촌 주민 300명의 추억 여행> 편이 있다.

상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SBS 일요일이 좋다 ‘사돈, 처음뵙겠습니다’

- ※ 기본 정보 :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 방영된 가족 드라마
- ※ 기획 의도 : 가족의 탄생과 갈등, 이해의 과정이 담긴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 ※ 분석 내용 : 다문화가정의 가족 구성원의 고향을 찾아가서, 사돈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포맷으로 시청자들에게 다문화가정 출신의 국가와 지역 문화를 소개하면서 친분을 다질 수 있게 했는데, 대회 해외촬영으로 인한 제작비부담을 이유로 8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사례 2. SBS ‘다문화 자녀’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 ※ 기본 정보 : 최근 다양한 포맷의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에 맞게 다문화 자녀를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획중에 있다.
- ※ 기획 의도 : SBS는 올해 방송을 목표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끼와 재능을 겨루는 서바이벌 오디션을 신설한다. 그동안 지상파와 케이블·위성채널에 연예인 데뷔를 목적으로 한 오디션은 많았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들만을 지원자로 한정된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아직 제목이나 방송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 분석 내용 : 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한 방송 관계자는 “스타 탄생보다 이제 우리사회의 한 축을 형성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대중문

화를 함께 즐기는 취지”라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 오디션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는데, 심사위원도 인기 가수나 작곡가 등이 심사를 맡은 기존 오디션과 달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연예인이나 방송인 혹은 혼혈 연예인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⁸⁾.

④ EBS

사례 1. ‘마주보며 웃어’

- ※ 기본 정보 :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23일 방영된 가족대상 드라마
- ※ 기획 의도 : 가족의 탄생과 갈등, 이해의 과정이 담긴 다문화 가족드라마
- ※ 분석 내용 : 베트남 여성이 어부와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며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후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농촌 드라마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례 2. ‘꾸러기 천사들’

- ※ 기본 정보 : 2011년 4월 4일부터 2011년 12월 3일 방영된 어린이 드라마
- ※ 기획 의도 :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과 이들의 첫 사회 생활이 시작되는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드라마
- ※ 분석 내용 : 극 중에는 한국인 아빠-베트남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현민이 유치원에서 인기 있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인 아빠-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주희-주혁

8) 방송사들은 일반 편성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교양 프로그램을 선호하지만, 명절같은 특별 편성이 필요한 기간에는 다문화 가족 노래자랑, 외국인 며느리 열전과 같은 단기성 오락 프로그램 포맷을 선호하고 있다.

쌍둥이도 같은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로,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문화 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극 중에는 ‘넌 왜 피부가 까매?’ ‘나 재랑 놀기 싫어’ 등의 대사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지만, 결국 화 해하고 함께 놀게 되는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어린이 드라마이다.

사례 3. ‘한글기차치포’

- ※ 기본 정보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4일 방영
- ※ 기획 의도 :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
- ※ 분석 내용: 혼혈 어린이가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면서, 한글 교육과 함께 한국과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거나 설명해주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사례 4. 한국말 요리쇼

- ※ 기본 정보 : 2007년 11월 15일 첫 방영되었고, 현재 중영된 상태
- ※ 기획 의도 : 이주 여성과 함께 다양한 요리를 만들면서 한국어를 배움
- ※ 분석 내용: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요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⑤ 그 밖의 방송 서비스

OBS TV는 지난 해 2월부터 매월 한편씩 외국인 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의 자막 서비스를 시작했다(연합뉴스, 2011.10.

27). KBS는 한국어 발음 교육 페이지를 개설해 한국어규칙(문법), 발음, 맞춤법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사 사이트 KBSWORLD에서 11개국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SBS는 사이트에서 일어, 영어, 한자를 지원하고 있다.

IV.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언어 교육 지원 차중에 기타 정책 중복 심각

최근 다문화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이 정부 및 많은 관련 기관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 한국어 교육이 50.6%이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과 자녀 양육 및 학습지원을 위해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09).

최근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물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 업무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총리실 훈령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센터, 광역센터, 지역 센터로 세분화하도록 한 것으로, 최근 주목을 받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인 ‘국제다문화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

한 논의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2. 2014년 다문화 학생 비율 1% 시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초·중·고의 71.8%인 7989개교에 다문화 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이다. 2006년 1만4654명(전체 학생의 0.19%)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작년 3만8678명(0.55%)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도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세를 유지해 2014년에는 전체 학생의 1.1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을 공교육 체제로 포함시키는 등 교육 체제를 다문화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을 3월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이 정규과목으로 생길 예정이며, 다문화 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지만,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른바 ‘3.12 다문화 교육 종합 대책’에 대한 목표를 밝힌 것이다⁹⁾.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선 언어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내 지원 정책들의 대부분이 언어 교육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어교육에선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KSL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 수준에 따라 국어 또는 다른 정규 과목을 KSL로 대체해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는데, 한국어 표준 교재와 학생용 TOPIK(한국어능력시험)도 올해 중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방과 후 학교와 방학·주말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120명 수준인 이중언어 강사를 2015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 방법으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등록 단계부터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한다¹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피부색 등 인종적인 차이로 차별을 받는 국내 출생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중도입국 학생들까지 모든 다문화 학생을 보살필 수 있는 전방위적인 다문화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다문화 가정의 지원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전교생(400명)의 10%가 다문화 학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이날 교사·학부모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다문화 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보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학생 가운데 하나로 일반 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고 재능도 발휘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정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에 26명의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두고 이 중 7명을 출입국관리소에 파견한다. 이들은 외국인 자녀가 입학할 때부터 입학절차를 안내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적 취득 시기와 동시에 입학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학력 인정, 학교 배정, 사후 관리, 학부모 교육 등 다문화 학생 업무를 전담한다. 정규학교 배치 전 다문화 학생이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는 기존 서울, 부산, 광주 3개교에서 올해 안에 전국 26개교로 늘어난다.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학생은 희망에 따라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받고 정규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V. 결론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이라는 개념이 최근 장애인, 특히 시청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 집결되면서 물적, 인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주류가 누리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주변인들까지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의 증가를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고는 현 방송정책이 소외계층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후, 우리 사회에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지원정책이라는 제도적 틀로서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현 방송 소외계층 정책에서 비중있게 조명받고 있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올 8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나 접근 방식이 구시대적이며 차별화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인 접근에서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현 방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정책과 법으로 접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책 접근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외를 당하는 이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수와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소외

되고 있다는 인식은 편견일 수도 있다. 최근 장애인이란 비장애인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장애인에 대한 영어 표기도 disabled people에서 differently abled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프로그램은 해외 사례를 통해 벤치 마킹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오해는 무엇인가를 먼저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디어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다.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신기 보급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정책 투자는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변하고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 없이 미디어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될 때,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시청각 장애인 방송 지원서비스를 통해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새터민과 다문화, 고령화, 저소득층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원 마련 방법과 활용 방안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향후 논의가 절실하다¹¹⁾. 이는 시청각 서비스가 다문화, 새터민 등 다른 소외계층들과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최근 다문화가정(1990년 이후 혼인가정) 중 등록 장애인은 11만5305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7.3%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 4.6%와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0.12.15).

마지막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흩어져 있는 개인이나 이민자들에게 공통된 가치관과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Janowitz, 1952; Clark, 1969; Stamm, 1985; Rogers, 1993). 때문에 청소년, 노령층, 다문화가정, 새터민을 방송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해석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소외 계층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우열을 가리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으로 정의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열린 마음과 비차별적 인식의 태도가 방송을 통해, 특히 공공 서비스를 다하는 교육방송에게는 어쩌면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윤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해야 하는 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 문헌

- [1] 김한중(2006). 다문화사회의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한국역사교육학회, 제4호, 7-46
- [2] 백선기, 황우섭(2009). 다문화성 TV 방송 프로그램의 패러독스. 《한국언론정보학회보》 봄 통권45호, 256-295
- [3] 윤석민(1999). 다채널 상황하의 수용자 복지와 보편적 방송영상서비스. 《한국언론학회보》 제44권 1호, 5-525
- [4] 이상길 · 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51-5호, 58-83
- [5] 송종길(2003).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방송연구》 통권 제57호, 7-310
- [6] 보건복지부,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0.3 발표, 3년주기
- [7] 통계청, 2010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8] 동아일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지원 정책들' 2012년 1월 24일 자
- [9] Compaine, Benjamin M.(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Cambridge, MS: MIT press
- [10] Davis(1992). Media Literacy: From activism to exploration. Back ground paper for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Education, MD: The Aspen Institute

필자소개



최은경

- 2002년 : 영국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석사
- 2012년 :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박사
- 2006년 ~ 2010년 : KBS 영국 통신 연구원
- 현재 :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학 강의